

# 中 “군사력 증강해 日군비확장 무력화”

### 에도 끝나자마자 ‘아베효과’ 경제 평화헌법 개정 기정사실화

중국이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에도의 시간’을 끝내자마자 ‘아베 효과’에 대한 본격 견제에 나선 양상이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일본 내 동경 여론이 그의 숙원이었던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에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 강화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중국도 군사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다음날인 9일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 명의의 조전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내 중일관계 발전에 고인이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그러나 10일 아베 피격 사망의 여파 속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미국발로 일본의 재무장 지지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견제 모드를 가동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관영 매체들은 연일 아베 전 총리의 생전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관영 매체 보도와 관련 언론인의 글에서는 일본 우익의 ‘아이콘’으로서 개헌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론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아베의 급작스러운 사망이 평화헌법 개정과 일본의 군비 강화를 재촉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견제하는 중국 정부의 시각이 엿보인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아베 전 총리가 2018년 중국을 방문해 양국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그러한 접근도 일본을 ‘보통국가’ (정식 군대 및 개헌권을 보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야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자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또 아베 전 총리가 생전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사실, 총리에서 물러난 뒤 독립 성향의 대만 민진당 정권을 적극 지지한 일 등을 거론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신문은 일본 국민 과반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일본 신문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많은 관찰자는 일본이 ‘제약(평화헌법 등)’을 깨고 재무장을 이루려는 아베의 소원을 실현함으로써 지역 평화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유력 관영 언론인인 미국이 일본의 군대 합법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워싱턴포스트(WP) 사실을 소개하며 중국이 국방력 증대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13일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내 직감은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반대해도 미국이 물길을 터 준 이상 자민당이 결국 개헌을 할 것이고, 일본은 군대 보유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단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독 터지듯 이뤄질 것이고 대만 문제에서도 더욱 기세등등할 것이기에 중국이 직면할 도전은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일본의 군비 확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독일이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12월 31일부터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완전히 멈추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 차관은 호주에서 열린 시드니 에너지 포럼에서 “몇 주 뒤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이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이번 포럼은 호주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했다. 독일은 최근까지 전체 석탄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이어 쿠키스 차관은 “연간 1천580억㎥에 달하던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한 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가 다음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몇 달이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기 위해 LNG 터미널 건설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카타르 등에서 LNG 형태로 가스 300억㎥를 들여와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문제가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쿠키스 차관은 말했다.

그는 독일이 ‘넷제로’(탄소배출 제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도 정비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전환에는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대통령궁 앞 국기 흔들는 스리랑카 시위대 한 스리랑카 시위대가 13일(현지시간)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궁 앞에서 스리랑카 국기를 흔들고 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73)은 식량과 연료 공급난을 초래한 경제위기에 분노한 시위대를 피해 지난 9일 대통령궁을 떠났고 이날 오전 몰디브로 피신했다. /연합뉴스

## 독 “러 석탄 수입 내달 중단...원유는 12월에”

독일이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12월 31일부터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완전히 멈추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 차관은 호주에서 열린 시드니 에너지 포럼에서 “몇 주 뒤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이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이번 포럼은 호주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했다. 독일은 최근까지 전체 석탄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이어 쿠키스 차관은 “연간 1천580억㎥에 달하던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한 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가 다음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몇 달이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기 위해 LNG 터미널 건설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카타르 등에서 LNG 형태로 가스 300억㎥를 들여와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문제가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쿠키스 차관은 말했다.

그는 독일이 ‘넷제로’(탄소배출 제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도 정비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전환에는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노획 탱크 앞 포즈 취한 루한스크 민병대원들 12일(현지시간) 친러시아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리시찬스크에서 루한스크 민병대원들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노획한 전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베 피습에 기시다 지지율 60%대로 반등

58% “활발한 개헌 논의 기대”  
참의원 당선자 73% “개헌 찬성”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60%대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1-12일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천109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65%로 나타났다고 13일 보도했다.

지난 5월 64%에서 지난달 57%로 떨어진 지지율이 반등한 것이다.

“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달 28%에서 24%로 하락했다.

요미우리는 지지율 반등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망으로 보수표가 결집해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인 셈이다.

교도통신이 11-12일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63.2%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58%가 “기대한다”고 답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37%)을 크게 웃돌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루비는 행운의 상징?

미얀마 군정 ‘2789캐럿 헌납’에 호들갑

미얀마 군사정부가 행운의 상징으로 알려진 대형 루비를 한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자 관제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3일 현지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군정이 운영하는 방송 매체는 미얀마 군이 중량 2789캐럿의 루비를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에 기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SAC의장 겸 군정의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해 군 실세들이 대거 참석했다.

흘라잉 장군은 한 애국 청년이 대대로 물려받은 기보물 군에 기증해 다시 국가에 헌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정이 발행하는 신문도 관련 사진을 지면에 실으면서 루비의 명칭을 SAC로 정했다고 전했다.

군정 기관지인 미야와디는 사실까지 게재하면서 명예와 권위 등 점성학적 측면에서 루비가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진 행운에 대해 기술했다.

군정이 운영하는 매체들은 이번에 기증받은 루비의 가치는 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으며 현재 보안시설에 보관됐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정은 대대로 행운의 상징인 루비를 발견하거나 기증받을 경우 정권의 권위와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렸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